

2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급락 `12년 최저 `..다우 3.4%↓ [다우: 7,114.78 (-3.41%)	23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 주요 지수는 일제히 3% 넘게 떨어졌고,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지난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은행 국유화 공포가 희석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개장 직후 하락권으로 투항. 이후 은행들의 국유화 우려마저 진정되지 않으면서 줄곧 낙폭을 키워 일일 최저점 수준에서 마감. 미국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하고, 테스트 이후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은행들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美 `민간 은행 시스템 유지` 재확인..국유화 우려 여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로 하여금 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은행시스템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은행들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거나 주택가격이 20%씩 폭락하는 등의 불황과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스트레스트 테스트는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
美 정부, 자동차 파산 대비 400억弗 금융 논 의	미국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챕터 11)에 대비해, `챕터 11`하의 기업회생 자름인 DIP 금융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 이 재무부 관리는 이 같은 조치가 파산보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다만 파산보호 등 모든 옵션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언급, 미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신청을 여전히 옵션으로 갖고 있음을 시사.
국제유가 4% 하락..증 시급락 여파 [WTI: \$38.44 (-\$1.59)	뉴욕증시 부진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며 배럴 당 38달러 선에서 마감. 최근 미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이날 급락세를 보인 점이 원유시장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줌. 미국의 금융시스템 불안과 실물경제 악화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리세션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원유수요마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하락..獨 4년 만에 4천선 붕괴	지난주 6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던 유럽 주요증시가 23일 장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기침체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씨티그룹을 국유화하는 대신 지분을 40%까지 늘리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등하는 듯하던 유럽증시는 거래 마감 1시간 전까지 1%이상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경기 후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다시 하락세를 보임.
동유럽 4개국, 환율 '공동보조' 합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4개국 중앙은행은 23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 지지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 이번 발표가 나온 후 폴란드 즐로티, 체코 코루나, 헝가리 포린트, 루마니아 레이 등 이들 국가의 통화는 유로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냄.
英-佛, 은행구제 잇단 자금지원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을 상대로 추가 자금 투입에 나섬. 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표류 우려에 봉착한 가운데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은행 등에 5천억 파운드(약 1천70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2일 보도. 프랑스 정부는 케스 데파르뉴와 방크 포퓰레르 은행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25억유로~50억유로(32억달러~65억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이 23일 밝힘.
주식펀드 순자산 한달 만에 80조원 아래로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2,649억원 감소한 138조316억원을 나타냄.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은 2,720억원 줄어든 83조7,914억원을,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71억원 증가한 54조2,402억원을 나타냈음.
수출기업 환헤지 거래 사실상 실종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이 수출기업과 체결한 환헤지용 파생거래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20%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수출 물량 감소와 환헤지 비용 증가라는 일차적 요인 외에도 은행들이 환헤지 거래를 기피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산업계 '잡 셰어링' 확산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경제주체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하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 잡 셰어링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함께 뛰어넘기 위한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연초부터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가 실행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